

# '108배 원력' 밀행으로 이어져

佛)였다. 스님은 그 길로 외출증을 끊어 서울 적조암 녹야원으로 동암 스님을 찾아갔다.

밀은 스님의 이야기를 들은 동암 스님은 껄껄 웃었다. 동암 스님은 "동화사 불상 조성이 시원치 않다고 말한 것을 밀은 스님이 잘못 알아들었다"며 "그래도 불행불이란 답을 얻어낸 진전은 대단하다"고 칭찬했다.

이후 밀은 스님의 생각은 '스님이면 제를 지키며 살아야 스님이고, 사람이면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僧行僧人行)'으로 이어졌다.

스님은 "그때의 일이 평생 공부에 도움이 됐다"며 "세속의 공부도 머리뿐만 외운 것은 실(實)이 없다. 직접 부딪혀 깨달은 생각이 있어야 철학이 되고, 사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요즘 '너도 부처, 나도 부처'라면서 '개도 부처' '소도 부처'라는데 나는 그것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깨닫지 못했으면 다 중생이예요. 단 불성은 누구나 갖고 있고, 누구나 다 부처될 가능성을 품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산천초목과 바다 속 어류에도 불성이 있고, 그 불성은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품은 갈수록 물라도 수행을 하고 깨달아야 부처입니다."

"스님은 스님답게, 사람은 사람답게 살며 쉬지 말고 정진하라." 밀은 스님의 가르침은 간단했다.

원로 밀은 스님은 지금도 부목을 가져다다. 스님이 화장실 청소까지 도맡아 했을 때는 청승보다 '홍물똥'이 손가락질이 돌아오기도 했다. 하지만 비밀리에 수행 정진하는 밀은 스님의 행은 그칠 줄 몰랐다.

사중 일을 내 일처럼 하다 보니 스님에게는 취득한 특허가 5개나 되는 특이한 이력도 생겼다. 하수구용 배수전, 칫솔, 쫄면의 받침판 구조, 연등의 프레임 결합구 등. 일을 하다 불편하면 공리를 했고 그것은 바로 아이디어로 이어졌다.

"일하는 것이 좋다"는 스님은 회수를 바라보는 지금도 꼼꼼한 손놀림에다 부지런함과 절대 함부로 보고 넘기지 않는 성격까지 더해져 최고의 '부목'이었다.

지난달 여름밤 산사를 연꽃과 선술로 수놓았던 '봉선사 연꽃축제'를 있게 한 봉선사 연꽃밭도 밀은 스님이 원력으로 일군 것이다.

종단에서는 원로회의 부의장으로 사중에서는 회주로서 부목 소임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스님은 수행자의 본분 역시 하루도 잊은 적이 없다. 밀은 스님은 지난 40여 년 동안 아침 예불과 108배, 율력, 참선을 빠뜨린 적이 없다.

스님은 "108참회는 부처님에 대한 믿음에서 시작한 것이 40여 년을 하게 됐다. 매일 108배를 하니 하는 일마다 술술 풀리고 건강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1985년 성수·고산·원당·정무 스님 등과 스리랑카 불처법 순례를 갔을 때 스님은 108배를 쉬지 않았다.

"108배를 마치고 참선을 하는데 불행듯 '무

원근(無遠近)'이 떠올랐습니다. 밀고 가까운 것이 없는 것, 태어남도 죽어도 없는 그런 경지. 환희심이 일어납니다."

만년 부목, 밀은 스님의 원동력은 108배였다.

산은 모든 짐승을 가족으로 안아 들고, 물은 어해(어깨류)들을 어루만져준다 (山抱禽獸族 水摩魚蟹羣)

스님은 한 편의 액자를 가리키며 "산은 짐승이든 나무든 말없이 모두 품어주고, 물은 드러내지 않고 물 속에 사는 모든 것을 어루만져 준다"며 "산과 같고 물과 같은 마음이 자비"라고 강조했다. 또 "양보하고 용서하면 싸움 일이 없다. 자비, 존경, 양보, 용서를 지키는 것이 성현을 닮고, 성현이 되는 삶"이라고 말했다.

밀은 스님은 "모든 사람이 자비, 존경, 양보, 용서의 네 가지만 지키면 세상 평화는 저절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의 평화는 하심(下心)과 자존(自存)으로 일군 복전(福田)이었다.

꽃은 벌떼를 불러 모으고, 벌은 꽃향기를 좋아하니, 꽃과 벌은 서로 돕기에,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서로 나빠질 일이 없다 (花召群蜂 蜂樂花香 花蜂相助 終古不變)

밀은 스님은 "부처의 마음을 일으키는 높이나 중생의 망상을 일으키는 높 모두 같은 나 자신"이라며 "진흙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청정한 꽃을 피우는 연꽃처럼 스스로 생각을 돌이켜 심성을 정화하며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객이 피우정을 나설 때는 하늘이 말갈게 깨어 있었다. 태양의 폭압에 대지를 떠났던 물기도 조목의 생명수로 제자리를 찾은 듯 했다. 축석 검문소 앞 공원 한편의 축석도 그대로였다. 우리는 무엇을 원해야 하나?

글=조동성 기자 cetana@buddhapia.com  
사진=박재환 기자 wanhollo@hanmail.net



### 밀은 스님은...

1934년 황해도 연백에서 출생했다. 1954년 경복영주 초암사에서 대오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비로사에서 무강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받았다. 1971년 봉선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보살계와 비구계를 수지했다. 1972년 봉선사에서 운허 스님을 법사로 건당했다. 1967년 비로사와 봉선사에서 교과 수료. 1982년 스리랑카 승가사범대학 미투라 박사학위(삼장법사), 1983년 스리랑카 국립 푸리베나 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동년 동국대 행정대학원 수료. 1985년 서울대 행정대학원 발전정책과정을 수료했다.

불국사, 통도사, 해인사 등 제방의 선원에서 안거한 스님은 제 5, 6, 7, 8, 9대 중앙총회의 원과 총무원 부원장, 봉은사·봉선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총무원 부원장 때는 경승단 창립을, 봉은사 총무 때 현재의 봉은사 땅을 되찾은 장본인이다. 현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



##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 59. 한국의 원효 이기영 박사

불연 이기영(1922~1996) 박사는 1922년 황해도 봉산 출신이다. 1945년 경성제대 사학과를 다니다가 1957년 백이(白耳義) 루뱅대학에 들어가 1960년 철학 박사학위를 받고, 1961년 WFB 한국대표로 캄보디아에 참석하면서 불교와 깊은 인연을 갖는다.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1957년 팰리대학에 가니 한 신부님이 '기신론(起信論) 강의'를 하면서, <해동소(海東疏)>를 아느냐! 물었어요. 그래서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 '당신 나라 원효 대사가 쓴 <기신론소>'가 <해동소>인데,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여기까지 무엇 하러 왔소' 하여 부끄럽기 짝이 없어 얼굴이 홍당무가 되었는데, 그 뒤 한국에 와서 <원효전서>를 찾아보고 새삼스럽게 놀라움을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났다. 우리와의 인연은 서울대학교 강사로 있으면서 박종홍 교수님과 함께 종교 세미나를 할 때 자원봉사를 하면서부터였다. 대부분의 동국대학교 교수님들이 어학이 부족하고 국제 뉴스에 어두운데 반하여, 박사님은 이 면에 능하셨을 뿐 아니라, 여러 종교에 대한 비교 발표를 잘 하였습니다.



기영 박사님은 '한국의 원효'로 부각되고 말았다.

박사님은 한 때 동국대학교 총장의 물망에 올랐으나, 불교신도의 적(讎)이 없다고 하여 기존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박사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출마하는 것까지도 사양하였다.

"나는 다른 종교단체에서 장학금을 받아 유학하게 되었는데, 거기 가서 불교를 알게 된 것마저도 다행인데, 그 신형 적까지 말할한다는 것은 내 양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이지 나·네 것을 가려 친·불친을 논하는 종교가 아니다."

만약 그 분이 총장이 되었다면 동국대학교는 그 면모가 달라졌을 것이라 생각된다. 국내 학과편을 중심으로 한 동국대학교가 아니라 국제 무대에 나아가 세계적인 학자들이 한 장소에서 강의하는 국제대학이 되었

### 원효 대사에 대한 외국연구 보고 '원효 시대 만들 것' 다짐

금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이기영 박사님이 원효 대사를 연구하게 된 동기가 된 것이다. 더군다나 일본에 가서 고산사라는 절에 원효 대사의 영정(影相)과 의상 대사의 구도가 병풍으로 만들어져 신처럼 모셔지고 있는 것을 보고, "한국에서는 원효 대사를 대처럼 취급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성인으로 받들어 모시고 있으니 참으로 놀랐다. 그래서 늦었지만 나라도 연구하여 원효의 시대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였다."

사실 박사님께서 유럽에 갔을 때 전공한 것을 보면 '불교 고전어' '불교사상사' '종교사'에 불과했는데, 원효 대사의 전적을 보고 또 캄보디아, 베나레스 등 불교의 성지를 참배하고,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 주임교수가 되면서 비교사상연구원 소장을 맡아 서울대 문리대·연세대·서강대 강의를 하면서 불교학자로

으로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았다.

특히 1963년 <불교학보> 제1호에 "정법(正法) 은몰설(隱沒說)에 관한 종합적 비판"이 나오면서 박사님을 보는 견해가 두 패로 갈라지게 되었다. 보수주의파에서는 "불교를 지나치게 속화하고 있다"고, 진보파에서는 "이러한 논문을 배경으로 새로운 불교운동을 일으켜야 한다"고 하였다. 이후 '한국불교연구원'이 만들어지면서는 이기영 박사님을 재가불자운동의 선구자로 낙인을 찍어 불교대학 학장을 시켜서는 안된다는 연판장까지 들기도 했다.

그러나 박사님이 쓴 <원효사상>은 60년대 최고 우량도서로 선정되고, '유네스코선정 한국 10대 명저'의 하나가 되었으며, 한국도서관 협회가 선정한 1950년대부터 30년동안 선정한 우량도서가 되어 서울신문화상을 받게 되자,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을 것이다. 또한 한국, 일본, 중국에만 알려진 원효가 아니라 세계적인 원효가 국경을 넘어 날아가 소승을 대승화시키고, 대승을 일승화(一乘化)하여 온 세계를 한불가 가정으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리라 생각된다.

어느 때, 내가 대학원 원서를 가지고 박사님께 가니, "거리에서 사는 사람이 왜 울타리 속에 들어오려 하는가. 한국불교는 원웅(圓融)불교가 되려면 앞으로 100년 세월은 더 걸려야 할 것이니 한 생각 놓아 버리고 포교나 하거."

사실 김동화 박사님은, '대학원에 들어와 내 교리발달사를 전공하게' 라고 하여 원서를 가지고 갔으나, 이 말씀을 듣고 일생을 포교하는 거리의 행자가 되기로 작정하고 김동화 박사님에게는 <불교교리 발달사>라는 책을 내드리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중생구제와 자비실천을 함께하실 스님, 포교사, 법사님을 모십니다

종정대행 총무원장 월산 혜봉

### ※ 준비서류 및 서류 발급

- ◆ 종단 입증신청서,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장
- ◆ 입증하시면 사찰등록증, 주지 임명장,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증 발급
- ※ 각 지역별 간부직 소임자를 우선 모십니다. 연락바랍니다.

###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번지  
전화 054)262-5060 / 팩스 054)262-0067  
혜봉스님 직통 011-545-5060



거제도 총명사 아미타후불명화



거제도 총명사 신중명화 거제도 총명사 칠성명화

##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근 - 원만당 석운

해동불교미술원  
016-219-7180 / 011-743-5167

##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텔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대칼라지붕공사